

2005 한우회원농가교육 및 제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결과보고회 개최

- 편집실 -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지난 8·9일 양일간 강원도 평창 오대산관광호텔에서 2005 한우회원농가교육 및 제8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결과보고회를 회원농가 및 관련조합 관계자 등 1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박순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우의 사육두수나 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서서히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기정 사실화되어 가는 분위기에 동요되어 한우시장에서 불안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한우산업의 성장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농민들에게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이력제와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정착한 후



개회사(박순용 회장)



전국화우등록협회 후쿠하라 리이치 회장의 강연

에 수용되기를 바라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듯 하다며 이웃 일본의 화우농가 또한 우리의 입장과 같은 시장의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관계기관, 조합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우리 한우농가도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의 한우산업에 대해 능동적으로 방향을 설계하였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어 진행된 교육은 일본에서 특별히 초청된 전국화우등록협회 관계자의 교육으로 먼저 아나다 카츠히토 개발추진과장의 '화우등록협회의 업무와 화우육종조합의 운영에 관한' 주제를 통해 등록의 필요성과 육종가를 이용한 암소개량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다. 특히 개량의 필요, 불필요성과 그 방향은 농가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개량의 기초가 되는 등록에 대해서도

그 필요를 자각한 농가만이 모여 동지적 결합체의 의지와 책임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계속된 후쿠하라 리이치 회장의 '일본 장래의 화우개량 정책에 관하여'의 주제를 들어 화우개량에 대한 협회의 기본적 자세와 쇠고기 자유화 이후의 화우개량의 성과에 관해 알기 쉽게 자료화면을 이용해 설명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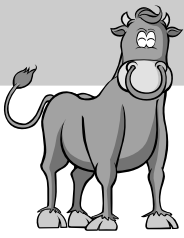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허덕 박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비롯한 축산물 무역체계의 변화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를 들어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다양한 많은 조사내용을 근



이종헌 부장의 제8회 대회 결과보고



우영목 추진위원장의 협의회 진행



거로 향후 우리 한우농가들이 수입재개 전후에서 어떠한 경영으로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하였다.

한편 2일차에는 제8회 대회 결과보고 및 9회 대회 행사를 위한 협의회 시간을 가졌다.

결과보고는 이종현 부장의 설명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시장 흐름에 따른 경제적인 고급육 생산 방향과 종모우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도축결과를 토대로 설명이 있었다.

협의회에서는 7·8회 대회 이규석 추진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9·10회 대회 추진위원장으로 우영목 안성마춤한우회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으로 김상준 한우핵군육종연구회장, 김인필 한창목장대표가 책임을 맡기로 했다. 또한, 지난 대회와는 달리 9회 대회는 브랜드 부문과 일반부문의 구분을 없애고 통합해 성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관계자는 “한우능력평가대회는 그 동안 우량한우를 발굴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유일한 전국단위행사로 고급육 사육농가들이 전국 최고한우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며 “한우고급육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대회참여 농가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브랜드와 농가를 구분해 시상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서도 수상을 하지 못하는 출품자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회 대회부터는 출품자에 대한 구분없이 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